

저렴한 공공임대 나도 한번 살아볼까?

광주·전남 1530가구 등 전국 172곳 6만8000가구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청년·한부모가족·고령자 등 우선 공급
고령자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다음달 6~15일까지 신청 접수

올 하반기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분양을 포함한 올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연말까지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우선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국 총 172곳 6만8022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며, 수도권은 총 80곳 3만3607호, 지방권에서는 총 60곳 1만338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수도권 총 24곳 1만651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고, 지방권에서는 총 8곳 497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우선 광주에서는 오는 7월 광주도시공사의 행복주택(500호)이 입주자를 찾는다. 9월에는 LH의 행복주택 광주월산1(30호)이 예정돼 있다.

전남에서는 이달 LH 행복주택 '목포법원 1' (400호)이 입주자 모집에 나섰고, 7월에는 LH 국민임대 '광양와우 A2' (200호)와 영구임대 '광양와우 A2' (200호)가 추진된다. 9월에는 LH의 행복주택 '여수서곡 A1' (200호)가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선 '목포법원 1'은 목포용해5 행복주택으로 대학생·

청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등 젊은 계층과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예전 목포지방법원 부지인 목포시 용해동824번지 일원에 건설되고 있으며, 2021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계층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단지로, 목포대양산단·목포삼진산단이 인접해 있고 인근 목포시청을 비롯한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공급평형은 전용면적 기준 16·26·36·44㎡로, 이면 16㎡형은 대학생·청년에게, 26㎡형은 대학생·청년·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36㎡형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4㎡형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 부담이 낮은 편이다.

2년마다 갱신계약을 통해 대학생·청년은 6년까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최대 10년까지, 주거안정이 필요한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LH홈페이지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PC 및 모바일)으로 진행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필요서류를 지참해 7월 9일과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목포용해5 행복주택 조감도.

까지 남교동에 위치한 트윈스타 2층(목포시 수문로32)으로 방문하면 청약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이외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과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올 하반기 2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정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1만4706호, 수도권 6540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600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입주자격도 오는 8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현행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7월27일까지 입법예고 완료 후 8월 개정 예정으로, 이후부터는 확대된 입주자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소폭 하락

전국 상승세에도 광주 0.01% ↓

11주 연속 하락하다 지난 주 보험세로 돌아섰던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또 다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6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전주에 비해 0.22%, 0.14% 상승했다.

이와 달리 광주는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0.01%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그동안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

난 3월 말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 주 0.00%로 보험세를 보이면서 하락세가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진 것이다. 동구와 서구는 각각 0.01%씩 오른 가운데 광산구와 북구 소재 아파트는 각각 -0.02%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광주지역 전세가격은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전세가격은 0.07%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전담센터 문 열었다

신고센터 오늘부터 운영

정부가 다음달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앞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관계 기관들과 함께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임대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할 수 없고 4년이나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은 환수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종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도 의무 위반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기간(4-8년) 중 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무단

으로 매각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것도 불법이다.

정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등이 등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됐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으로 임대료 기간 위반, 임대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과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고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가 원칙이지만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에 서면이나 방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의 불법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과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7조2천억원

지난해 대비 0.7% ↓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57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주체별로 공공공사 계약액은 18조 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3% 증가했고, 민간 부문은 38조5000억원으로 2.5% 줄었다.

공공공사는 도로 등 토목과 건축 계약액이 모두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중별로 보면 토목 분야의 계약액은 18조1000억원이었다. 작년 대규모 민자 사업의 지연효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23.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 분야는 상업용과 공장 및 작업장 용 건축 등이 늘어 작년보다 14.8% 증가한 3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상위 1-50위 기업의 건설공사 계약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7% 줄었다.

51-100위 기업 계약액은 4조5000억원으로 66.2% 늘었고 101-300위 기업은 5조4000억원으로 7.0% 증가했다.

현장 소재별로 보면 건설공사 계약액을 보면 수도권이 25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5% 줄었고, 지방은 32조2000억원으로 18.1% 증가했다. /연합뉴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총 110,858세대)



7~9월 광주·전남 8607세대 아파트 입주한다

광주 2922·전남 5685세대

올해 3분기 광주·전남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607세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올 3분기 전국 입주 예정아파트가 5년 평균(9만500세대) 대비 16.6% 증가한 11만 858세대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광주는 2922세대가 입주하고, 전남은 568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광주는 오는 7월 남구 지석동 일진스위트포레 347세대와 서구 쌍촌동 광주쌍촌 행복주택 21세대가 입주 예정 물량이다. 9월에는 동구 계림동 그랜드센트럴이 2334세대,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영무에 다음 220세대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7월 무안군 일로읍 오룡지구 34블록 에듀포레푸르지오 787세대와 오룡지구 35블록 에듀포레푸르지오 744세대가 입주한다.

같은 달 순천시 매곡동 신매곡 서한이 다음 1단지 725세대와 서한이다음 2단지 203세대, 여수시 관문동 여수관문 A-1블록 행복주택 200세대 등이 예정돼 있다.

9월에는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고흥남계 국민임대 362세대와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혁신 이노시티 에시아 1478세대, 목포시 석현동 서희스타힐스 1186세대 등이 입주할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